

골프여제 찬란한 대관식



신지애가 16일(현지시각)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LPGA투어 브리티시 여자오픈 최종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세컨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브리티시여자 오픈 9타 차 우승
한국 여자골프 올 메이저 타이틀 3개 휩쓸어

'1박2일' 연장 혈투... 하루 36홀... 2연승 신지애

"그냥 골프를 즐겼을 뿐"

신지애(24·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골프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완벽한 재기를 알렸다.

신지애는 16일(현지시각) 영국 리버풀의 로열 리버풀 링크스(파72·665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4라운드를 잇따라 치르는 강행군 속에 리드를 끝까지 지켜 우승을 차지했다.

강한 비바람 속에서 펼쳐진 3라운드에서 1타를 즐기고, 4라운드에서 1타를 잃은 신지애는 합계 9언더파 279타를 적어내 2위 박인비(24·이브과 288타)를 무려 9타차로 따돌렸다. 합계 점수에서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낸 선수는 신지애가 유일하다.

2008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4년만에 다시 정상에 선 신지애는 상금 41만8825달러를 받았다.

지난주 9차 연장전 끝에 우승한 김스밀 챔피언십에 이어 또 우승컵을 차지한 신지애는 각종 부상으로 2년 가까이 우승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LPGA 투어 통산 10승을 기록했다.

2라운드에서 4타차 단독 선두였던 신지애는 3라운드에서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해 베테랑 카리 웹(호주)에게 추격당했다.

LPGA 투어에서 통산 38승을 올린 웹은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신지애와의 격차를 3타로 좁혔다. 하지만 4라운드에 들어선 웹

LPGA 투어 브리티시여자오픈 최종순위

Table with 2 columns: Rank, Name, Score. 1. 신지애 (-9 279(71 64 71 73)), 2. 박인비 (E 288(72 68 72 76)), 3. 폴라 크리머 (+1 289(73 72 72 72)), 4. 미야자토 미카 (+2 290(71 70 72 77)), 5. 유소연 (+3 291(70 74 71 76)), 6. 카리 웹 (71 70 68 82), 7. 올리비아 그라나다 (+5 293(74 71 74 74)), 8. 스테이시 루이스 (+6 294(74 70 76 74)), 9. 케이티 퍼처 (71 71 73 79), 10. 키트리나 매튜 (+7 295(76 73 71 75)), 김인경 (75 72 73 75), 최운정 (72 73 72 78)

은 1번홀(파4)에서 더블보기, 2번, 3번홀(파4)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내는 난조를 보여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신지애도 1번홀에서 트리플보기를 했지만 이후 4개홀에서 파를 지킨 뒤, 6번홀(파3)에서 4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하면서 2위 그룹을 6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향해 질주했다.

16번홀(파5)에서는 깊은 황리야 벙커에서 친 샷을 홀 50cm에 붙여 버디를 낚는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18번홀(파5)에서는 어프로치 샷을 홀 가까이 붙여 가볍게 파로 마

무리했다. 한국여자골프단은 이번 시즌 4대 메이저대회 중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유선영), US여자오픈(최나연), 브리티시여자 오픈까지 3개의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했다. 한 시즌에 3개의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것은 처음이다.

나머지 한개의 메이저대회인 LPGA챔피언십은 평상산(중국)이 우승해 아시아 선수가 올 시즌 메이저대회를 석권했다.

신지애와 동반 플레이를 한 박인비는 18번홀(파5)에서 먼 거리 버디 퍼트가 홀에 들어가 폴라 크리머(미국)를 3위(1오버파 289타)로 밀어내고 단독 2위에 올랐다. 박인비는 LPGA 투어 상급랭킹 1위(142만달러)를 지켰다.

유소연(22·한화)은 3오버파 291타를 쳐 웹과 함께 공동 5위, 김인경(22·하나금융그룹)과 최운정(22·볼빅)은 공동 10위(7오버파 295타)로 대회를 마쳤다. 기대를 모았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5)는 공동 17위(9오버파 297타)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3년 연속 이 대회 우승을 노렸던 세계랭킹 1위 청야니(대만)는 공동 26위(11오버파 299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1박2일' 9차 연장도, 하루 36홀 강행군도 신지애를 막아지지 못했다.

2010년 일본에서 열린 미즈노 클래식 이후 1년10개월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이 없던 신지애는 지난주 김스밀 챔피언십에서 '우승 갈증'을 풀었고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까지 석권, '골프 지존'의 모습을 되찾았다.

LPGA 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한 2008년 이 대회 정상에 오르며 세계 여자골프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신지애는 이후 거칠 것이 없었다. 2008년 비회원으로 3승을 거두고 LPGA 투어에 정식으로 데뷔한 2009년에도 3승을 보태며 상급랭, 신인왕, 다승 1위 등 3관왕을 차지했다. LPGA 투어 사상 최연소 상급랭이었다.

2010년에는 예비양 마스터스를 제패했고 그해 9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등 맹활약했다.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1년. 허리 부상에 시달리며 시즌 도중 한 달 정도 휴식을 가져야 했던 신지애는 한 번도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시즌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부상을 털고 돌아온 신지애가 '골프 지존'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신지애는 김스밀 챔피언십에서 폴라 크리머(미국)와 8차 연장을 치르고도 승부를 내

지 못해 다음 날 9차 연장까지 벌여 기어이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1년10개월 만의 우승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신지애는 '1박2일' 연장전 탓에 예정보다 하루 늦게 영국에 도착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2주 연속 정상을 호령했다.

지난주 대회 마지막 날에는 26개 홀, 이번 대회에는 무려 36개 홀을 도는 강행군이 이어졌지만 절정에 오른 신지애에게는 오히려 다른 선수들과 타수를 벌릴 기회가 늘어난 의미일 뿐이었다.

공을 똑바로 치며 페어웨이를 놓친 적이 거의 없다는 뜻에서 붙은 '초크 라인'이라는 별명도 뒤살아났다. 2라운드에서 페어웨이 적중률 92.9%를 기록하는 등 대회 기간 내 내 이적 강풍을 뚫고 코스 여기저기에 '초크 라인'을 수놓았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메이저 2승과 함께 10승을 채운 신지애는 박세리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LPGA 투어에서 10승 이상을 올린 선수가 됐다.

다시 '우승컵 수집'을 시작한 신지애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전 세계 골프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신지애는 우승 인터뷰에서 "지난주 1박2일 연장전을 펼친 뒤라 체력적 부담이 컸는데 큰 성과를 거두어서 정말 기쁘다"며 "게임을 즐기려고 노력하면서 한 샷 한 샷 집중할 게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지애 새 캐디와 '2전 2승'
마음 편하게 해줘 '찰떡궁합'

4년 만에 브리티시여자오픈 정상을 탈환한 신지애의 뒤에는 새로운 캐디 플로리안 로드리게스가 있었다.

프랑스 예비양 출신인 로드리게스는 예비양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가방을 메거나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신지애와의 인연도 올해 7월 말 열린 예비양 마스터스에서 비롯됐다.

신지애의 매니지먼트사인 세마스포츠마케팅 관계자는 "신지애가 예비양 대회에 나갈 때 로드리게스가 선수들의 가방을 멘 것을 봤는지 관중이 보인다며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로드리게스는 지난주 김스밀 챔피언십부터 신지애와 공식 대회에 동행하기 시작해 '환상의 짝꿍'이 됐다. 부상 회복 이후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던 신지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었다. 나이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리지만 신지애에게 로드리게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코스에 나갈 수 있는 캐디였다.

신지애는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새로운 캐디가 무척 편하게 해준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신지애는 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로드리게스로부터 불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

김스밀 챔피언십에서 모처럼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뒤 신지애는 트위터에 "새로 바꾼 캐디가 예비양 출신이네요. 내년에 예비양에 돌아갈 땐 불어를 조금 할 수 있겠지요?"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브라질 월드컵 마스코트 '세피 아르마딜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의 마스코트를 공개했다.

FIFA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브라질에 서식하는 '세피 아르마딜로'(Three-banded armadillo·사진)'를 2014 브라질 월드컵의 마스코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세피 아르마딜로는 브라질 북동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 몸을 둥그렇게 말아 공격범 번신을 한다. FIFA와 브라질월드컵조직위원회는 전날 브라질 글로벌TV를 통해 브라질의 축



구영웅 호나우두가 참석한 가운데 마스코트를 처음 일반에 선보였다. 아르마딜로 마스코트는 브라질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몸통에 파란색 등갑질과 꼬리를 가졌고, 초록색 반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 또 '브라질 2014'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아르마딜로는 공인구인 '브라주카'를 든 형상이다.

/연합뉴스

암벽여제 김자인
세계선수권 우승

한국 스포츠클라이밍의 간판 김자인(24·노스페이스)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김자인은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불덩덩 부문에서 5위에 올랐다.

앞서 벌어진 리드에서 2위, 속도에서 4위에 오른 김자인은 스포츠클라이밍 3개 세부 종목의 점수를 더해 순위를 가리는 종합 부문에서 정상을 올랐다. 한국 선수가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